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1월 2주 ~1월 3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 국면 진입, 개발사 가격 기대 하향(12.30)
 - 폴 중앙은행(NBP)은 2025년 3분기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'균형 (equilibrium)' 상태에 근접해 있으며, 개발사들의 고가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
 - 신규 분양(Primary Market) 거래가격의 명목 변동률이 매우 제한적으로, 시장이 안정적 가격 형성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
 - 폴 내 6개 주요 도시(바르샤바, 크라쿠프, 브로츠와프, 우치, 포즈난, 그단스크) 분기 가격 변동률은 +1.5% → -1.4%으로 하락했으며, 바르샤바는 -0.1% → -0.6%로 하락 전환, 반면 10대 도시는 +0.4%로 소폭 상승해 전반적 가격 안정화 양상
 - 물가와 임금이 반영된 실질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 도시에서 분기·연간 기준 하락하였으며, 체감 주택 가격 인하 국면이 확산
 - 기존주택(Secondary Market)의 분기 명목가격은 6개 주요 도시 -0.9%, 바르샤바 -0.8%로 약세 지속
 - 분양가(Offer Price)는 3분기 -1.5% ~ -0.4% 하락, 2분기까지 유지되던 개발사의 고가 기대가 점진적으로 후퇴
 - 기존주택 시장에서는 바르샤바만 매도 희망가격이 3.8% 상승, 기타 대도시는 정체 또는 미미한 변동(-0.1%~+0.3%)
 - NBP는 분양시장의 가격 인하가 판매 유지 목적의 조정인 반면, 기존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에 가까운 안정 국면에 있다고 분석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에스토니아 핀테크 Iute Group, 우크라이나 은행 인수 추진(1.5)

- 에스토니아 핀테크 기업 Iute Group AS가 우크라이나 RWS Bank 인수 절차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으며, 우 중앙은행(NBU)에 인수 승인 서류를 제출
 - RWS Bank는 2025년 11월 지급불능(파산) 은행으로 지정되었으며, 예금보장기금(DGF)이 2025년 12월 31일 '전환은행(Transitional Bank)'을 설립해 매각을 진행 중
 - Iute Group은 공개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, 규제 승인 후 완전한 영업 은행을 인수하게 됨
 - 이번 거래는 2021년 체코 투자자의 Unex Bank 인수 이후 처음으로 외국계 자본이 우크라이나 은행업에 재진입하는 사례
 - RWS Bank 자산 규모는 2025년 1~9월 동안 45억 흐리우냐에서 17억 흐리우냐로 급감, 전체 60개 은행 중 50위 수준으로 하락
 - 파산 당시 RWS Bank는 전국 1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, 중소형 상업은행에 해당
 - 본 거래는 전시 체제에서도 우크라이나 금융시스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됨
- **우크라이나, 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 37개 건설 완료·착공(1.5)**
-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산업단지 내 37개 공장이 건설 완료 또는 건설 진행 중이며, 주요 업종은 농산물 가공, 식품 생산, 가구·목재, 기계 설계 등으로 확인됨
 - 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는 2025년 총 96.8백만 흐리우냐를 지원 하였으며, 이는 민간투자를 5~6배 규모로 유인하는 레버리지 효과 창출
 - 2025년에는 13개 산업단지에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였으며, 12월 31일 기준 등록 산업단지 총 118개, 전년 신규 등록 24개 포함
 - 이번 성과는 정부 주도 투자와 민간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와 직결됨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폴란드 TAURON, Pilchowice 수력댐 대규모 개보수 착수(1.5)

-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 TAURON Ekoenergia가 필호비체(Pilchowice) 수력발전댐 및 저수지 개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
- 사업 규모는 93백만 즈워티이며, 공개입찰을 통해 Naviga-Stal이 시공사로 선정
- 2026년 1월부터 준비공사 착수, 전체 공사기간은 24개월로 계획
- 사업 범위는 수문·기계·구조·전기 설비 전반의 보수 및 성능 개선을 포함하며 노후화된 댐과 저수지의 기술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
- 계약에는 댐 발전용량 증대를 위한 추가 공사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, 해당 확대 사업 시행 여부는 2026년 5~6월 최종 결정 예정
- 공사 기간 동안 저수지를 부분적으로 운영해 댐의 홍수 조절 기능을 유지하며 시공이 진행될 계획
- 초기 단계에서는 저수위에서도 가능한 현장 정비 및 구조 보강 공사를 우선 수행
- TAURON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부 실레시아(Lower Silesia) 지역 주민의 장기적 안전성과 홍수 대응 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

○ 폴란드, 최고 시속 350km 고속철도 차량 도입 입찰 개시(12.30)

- 폴 국영 철도 운영사 PKP Intercity가 최대 시속 350km급 고속열차 도입을 위한 대형 국제 입찰을 공식 개시
- 입찰 대상은 전동차(EMU) 20편성과 30년 장기 유지보수 계약, 전용 정비기지 설계·건설을 포함하며, 추가 35편성 구매 옵션도 포함
-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은 2026년 4월 29일
- 계약 체결 후 첫 2편성은 60개월 내 인도, 20편성 전량은 84개월 내, 옵션 포함 시 최대 110개월 내 납품 완료되어야 함
- 유지보수 서비스는 30년간 제공되는 장기 계약 구조
- 입찰 자격은 최근 7년 내 시속 250km 이상 운행 가능한 이중 전원 고속 EMU를 최소 5편성 이상 제작한 실적 보유 업체로 제한

-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바르샤바 - 우치 이동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, 폴란드 고속철도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
- 이번 입찰은 폴란드가 본격적인 초고속 철도 시대(350km/h급)로 진입하는 첫 단계로, 유럽 주요 철도 제조사들의 경쟁이 예상됨

○ 폴란드 CPK Port Polska, 태양광·ESS 기반 자체 전력 공급 추진(1.5)

- 폴 중앙교통청사(CPK)가 2032년 개항 예정인 Port Polska 신공항에 적용할 태양광-에너지저장장치(Solar+Storage) 시스템 설계 입찰에서 EPC 기업 Elektrotim을 선정
- 설치 규모는 태양광 20MW + 배터리 저장장치 50MW(2시간 운영 기준)로, 공항이 완전 가동되는 단계에서는 추가 증설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
- 공항 운영 전력은 태양광과 전력망을 병행 사용하며, ESS는 잉여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에너지 자립도와 계통 안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
- CPK는 “공항 인프라는 화석연료 기반이 아니며, 탄소 배출 에너지원은 구축하지 않는다”고 공식 발표하며, 본 프로젝트를 기후중립(Climatę Neutrality) 전략의 핵심 투자로 규정
- 태양광·ESS 외에도 폴란드 과학아카데미 산하 에너지연구기관과 지열(Geothermal) 자원 탐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, 향후 공항 난방·에너지 공급에 지열 활용 가능성도 검토 중
- CPK는 태양광·ESS·지열을 결합한 저탄소·자급형 공항 에너지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며, 향후 유럽 내 친환경 대형 허브공항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됨

○ GAP, 현대엔지니어링 상대로 29.8억 유로 규모 중재 제기(12.30)

- Grupa Azoty Polyolefins(GAP)이 Polimery Police 프로젝트 지연 및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현대엔지니어링(HEC)을 상대로 최대 29.8억 유로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를 비엔나 국제중재센터(VIAC)에 공식 제기
- 해당 중재는 2019년 체결된 EPC(설계·조달·시공) 일괄계약에 근거

하며,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GAP의 핵심 주장

- GAP는 지연에 따른 계약금 벌금, 프로젝트 중단으로 발생한 재무적 손실 보상, 하자 시정 또는 무결함 대체 설비 제공을 요구
- 또한 자재·장비·기술문서·시공물의 결함 시정 또는 전면 교체 명령도 중재 청구에 포함
- GAP CEO 스킨모프스키(Andrzej Skolmowski)는 현대엔지니어링 책임으로 프로젝트가 계약 기한을 초과했고, 이로 인해 중대한 재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불가피성을 강조
- GAP는 2025년 8월 이미 HEC의 청구를 공식 거부하고, EPC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벌금 부과 조치를 취했으며, HEC의 이후 계약 철회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
- 이번 GAP의 중재 제기는 HEC가 12월 29일 VIAC에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, 양측이 동시에 수십억 유로 규모 상호 중재를 진행하는 정면 충돌 국면
- 본 분쟁의 결과는 폴란드 최대 석유화학 프로젝트 중 하나인 Polimery Police의 향방과 폴란드 내 대형 인프라·에너지 EPC 시장의 국제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

○ 폴란드, 전력망 접속 규정 전면 개편 법안 승인(1.8)

- 정부가 발전·저장설비의 전력망 접속 절차를 개편하는 에너지법 개정안 초안을 승인, 해당 법안은 투명성 제고와 투기적 접속 신청 억제를 목표로 함
- 송배전망 운영자는 가용 용량, 접속 신청 현황, 심사 상태, 접속 거절 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
- 또한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되던 ‘케이블 풀링(cable pooling)’을 에너지 저장장치(ESS) 및 혼합 전원 설비까지 확대
- 2024년 이베리아반도 대정전 이후 ENTSO-E(유럽 전력망 운영자 협의체) 권고를 반영한 첫 EU 회원국 사례

- 소비자가 계약된 전력 용량을 초과 사용하면 전력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'파워 가드(power guard)' 제도 도입
- 접속 보증금은 kW당 30즈워티에서 60즈워티로 상승했으며, 총액 상한 600만 즈워티
- 1kV 초과 설비는 비환급 접속 수수료와 추가 보증금도 부담해야 함
- 접속 조건 유효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, 건설 인허가 미확보 시 접속 계약 자동 소멸 및 미사용 용량 환수
- 송전망 운영자는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시해 '접속 불가 지역 (no-connection zones)' 지정 가능
- 2028년까지 재생에너지 접속 용량 경매제 시범 도입, 발전소 시운전 중 생산 전력 판매 허용
- 20만 고객 이상 전력 판매사는 최소 1년 고정요금 계약 상품 제공 의무, 핵심 조건을 쉬운 요약문으로 제시해야 함
- 에너지 빈곤(energy poverty) 개념을 EU 기준에 맞춰 범제화하고, 해당 가구에 대한 단전 보호 장치 도입
- 신규 건물 및 계량기 교체 시 스마트 가스계량기 의무화(소비자 무상·경제성 충족 조건)

○ 폴 Grenevia,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에 37백만 즈워티 보조금 확보(1.8)

- 폴란드 재생에너지 투자사 Grenevia가 국가환경보호·수자원관리기금(NFOSiGW)으로부터 37백만 즈워티의 보조금을 확보
- 지원 대상은 총 130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(ESS) 3개 프로젝트로, 총 사업비는 약 130백만 즈워티로 추산
- 재원은 환경부 산하 NFOSiGW가 운영하는 '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전력 저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'과 EU 현대화기금(Modernisation Fund)을 통해 제공
- 프로젝트 완공 기한은 2028년 9월로 기한 내 기술적·환경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환수 또는 계약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Grenevia는 과거 광산 장비업체 Famur에서 출발해, 2021년 대규모

태양광, 2022년 풍력·ESS·전기차 인프라로 사업 전환을 본격화

- 폴 환경부는 2028년까지 대형 에너지저장시설 172기, 총 3.9GW / 14.5GWh 구축을 목표, 이번 Grenevia 프로젝트는 전력망 안정성과 재생 에너지 수용 능력 확대 정책의 핵심 사례로 평가함

○ 폴란드 그린펀드(PZF), 태양광·ESS 첫 투자 단행(1.8)

- 폴란드 국영 개발은행 계열 ARP TFI가 운용하는 폐쇄형 펀드 '폴란드 그린펀드(Polski Zielony Fundusz, PZF)'가 재생에너지 부문 첫 투자로 WMC PV의 태양광 프로젝트 지분 50%를 인수
- 투자 대상은 폴란드 Prusinów에 위치한 15MW 태양광 단지, 추가 15MW 증설을 통해 총 30MW 규모로 확대되며, 에너지저장장치(ESS)도 함께 구축될 예정
- 총 투자 규모는 1억 즈워티 초과, 이 중 PZF가 1,700만 즈워티를 직접 출자하고, 나머지는 공동 투자자 자본 및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
- 증설이 완료되면 약 1만 5천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 또는 전기차 약 2만 대 충전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, 계통 연계는 2026년 2분기 예정
- ARP TFI의 피오토르 브로다 이사는 태양광+ESS 투자가 폴란드 에너지 전환 가속과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이라고 강조
- PZF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뿐 아니라 중소·중견기업(SME)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투자하는 전략을 공식화
- WMC PV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기존 태양광 단지의 '하이브리드화 (용량 증설 + ESS 추가)' 전략을 본격화, 2026년부터 그룹 내 신규 프로젝트의 수익성 개선과 확장 기반을 확보
- 이번 투자는 공공·민간 자본을 결합한 폴란드식 녹색금융 모델의 출발점으로, 국가 에너지 안보 및 전력 시스템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사례로 평가됨

○ 폴 그린펀드(PZF), 바이오메탄 발전단지 구축에 4억 즈워티 투자(1.13)

- 2026년 초 체결된 투자협약에 따라 ARP TFI와 Polish 폴란드 그린

펀드(PZF)가 참여하는 대규모 바이오메탄 프로젝트가 착수되었으며, 총 9개의 농업용 바이오메탄 플랜트(각 0.99MW)가 폴란드 전역에 건설될 예정임

- 전체 사업 규모는 약 4억 즈워티로, 이 중 PZF의 재정 투입은 59백만 즈워티에 달하며, 완공 후 설비들은 매각을 통해 회수 구조를 갖는 투자 모델로 운영됨
- 프로젝트 시행사는 Green Gas Energy(GGE)로, ARP TFI와 공동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해 개별 플랜트 건설·운영 법인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채택
- 폴란드는 현재 바이오메탄 플랜트가 1기에 불과하지만, 농업 부산물·유기성 폐기물 등 풍부한 원료 기반을 활용할 경우 연간 50~60억m³의 바이오메탄 생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

○ 폴란드 수자원청, 기존 댐·저수지 4,000곳 수력발전 투자 개방(1.12)

- 폴란드 수자원관리청 Wody Polskie가 전국 기존 댐과 저수지 4,000개 부지를 소수력 발전 개발 후보지로 공개하며 민간·공공 투자를 유치
- 해당 정책은 신규 댐 건설 없이 기존 수력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, 환경 훼손 최소화, 투자비 절감, 인허가 및 사업기간 단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적
- 투자자는 우대 조건의 토지 임대(Preferential land lease)를 활용할 수 있어 소수력 발전 시장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
- Wody Polskie에 따르면 폴란드의 기술적 수력발전 잠재량은 연간 13.7TWh에 달하나, 현재 활용 비중은 낮으며 소수력 발전만으로도 최대 15%까지 개발 가능
- 공개된 4,000개 부지는 이론상 655MW 설비 용량과 연간 4.86TWh 발전 잠재력에 해당
- 1MW의 수력발전 설비는 연간 최대 150만 mg(약 1,500톤) CO₂ 감축 효과가 있어, 폴란드 및 EU의 기후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
- 폴란드 국가 에너지·기후계획(NECP) 2030 초안은 ▲향후 5년 내 수력 발전 설비 1GW, ▲2040년까지 1.2GW 확대, ▲연간 발전량 약

3TWh 확보를 목표로 설정

- 이번 조치는 태양광·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수력(특히 소수력)을 계통 안정화와 저탄소 전력의 보완축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 전환 신호로 해석됨

○ 그단스크, 폐기물에너지 발전소로 공공교통 및 지방기관 전력 공급(1.9)

- 그단스크 북부에 2025년 가동을 시작한 폐기물-에너지 발전소 Port Czystej Energii(PCE)가 2026년 약 30,000 MWh 전력을 공공기관과 시 공공교통 시설에 공급할 계획
- 주요 수혜 기관은 그단스크 전차·버스 운영사(GAiT) 정류장 및 변전소, 재활용시설, 그단스크 경제개발청, 학교와 유치원 2곳 등
- 이번 공급은 지방정부 주도의 '인하우스(local government in-house) 에너지 모델'을 적용한 사례로, 폴란드에서 공공기관 단위 에너지 자립을 대규모로 실현한 최초 사례라고 시장과 시 당국이 평가
- PCE는 이번 전력 공급으로 2026년 약 100만 즈워티 절감 효과를 기대, 시 당국은 공공재정 부담 완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 가능성을 강조함
- 발전소는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며, 2025년 1~10월 동안 전력 약 80,000 MWh, 열 약 492,000 GJ 생산
-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며, 공공교통 전력 공급으로 지역 내 탄소 배출 감소 및 지속가능한 도시 에너지 체계 구축에 기여
- PCE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주도의 폐기물-전력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, 재생에너지 확대, 공공기관 에너지 자립, 운영비 절감이라는 다중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례로 평가됨

○ Energix, 폴란드 최초 24MW 에너지저장시설 운영 허가 획득(1.12)

- 이스라엘 Energix Renewable Energies의 폴란드 법인 Energix Polska가 Nowe Czarnowo I (24MW/56MWh)에 대해 폴란드 최초의 배터리 에너지저장(BESS) 운영 허가를 획득
- 해당 프로젝트는 폴란드 재생에너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준 모델로 평가되며, 향후 배터리 저장시설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
- 2025년 10월, Energix는 스위스 에너지 기업 Axpo와 계약해 상업 운영 최적화 및 균형시장 참여 준비를 진행
- Axpo는 BESS의 상업·기술·규제 지원을 담당, 도매시장·균형시장 및 부수적 서비스와 통합
- Energix는 태양광, 풍력, 에너지저장 프로젝트를 운영하며, 폴란드에서 300.6MW 운영, 52.4MW 건설 중, 670MW 개발 중
- 이번 허가 획득은 폴란드 배터리 저장시설 시장의 본격 개시와 재생 에너지 계통 안정화 확대를 알리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됨

○ 폴란드, 32MW Lubień 풍력단지 Vestas 터빈 공급 계약 체결(1.12)

- 폴란드 Lubień 풍력단지(32MW) 프로젝트에 대해 Vestas가 8기 (V150-4.0MW) 풍력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, 20년 AOM 5000 서비스 계약을 포함하여 장기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
- 프로젝트 개발사는 FW LUBIEN과 Greenvolt Power Group이며, 터빈 납품은 2027년 1분기, 상업운전은 2027년 내 완료 예정
- Vestas는 스마트 데이터 분석과 159GW 이상의 풍력 터빈 운영 실적을 활용해 풍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, 발전량 예측, 도매 및 균형시장 통합, 부수적 서비스 제공을 담당
- 이번 사업을 통해 폴란드는 유럽 내 풍력 발전 선도국으로 입지를 강화하며, 향후 추가 재생에너지 및 풍력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기준 사례를 마련

○ ArcelorMittal, 크라쿠프 대규모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착수(1.6)

- 글로벌 철강기업 ArcelorMittal이 폴란드 크라쿠프 사업장에서 2억 즈워티 이상을 투자, 신규 보일러동 건설, 폐열 회수 시스템 도입, 전력 변전소 신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착수
- 프로젝트 완료 후 크라쿠프 공장은 연간 CO₂ 배출량 11만5천 톤 감축 및 천연가스 소비량 감소 효과를 달성할 전망
- 신규 보일러동에는 가스 보일러 2대가 설치되어 열간·냉간 압연 설비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며, 워킹빔 냉각 과정에서 손실되는 약

12 MW 열 에너지를 폐열 회수 시스템으로 재활용

- 전력 분배 효율 향상을 위해 6kV 전력 변전소가 신설되어 기존·신규 설비 간 전력 공급을 지원
- 이번 투자로 연간 2,000 TWh 이상의 천연가스 소비 절감이 예상되며, 2027년 말까지 설비 완공 및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임
- ArcelorMittal은 2025년 말 크라쿠프 공장 아연 도금 설비 2호 라인에 40백만 즈워티를 투자하며 현대화 사업을 진행, 기존 아연 도금에 더해 Zn-Mg-Al 기반 Optigal 합금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 개선

○ 프랑스 Arabelle, 폴 첫 원전 터빈·발전기 공급사로 선정(1.13)

- Bechtel - Westinghouse 컨소시엄이 프랑스 EDF 그룹 계열 Arabelle Solutions를 폴란드 최초 원자력발전소의 터빈 아일랜드(비핵부 핵심 설비) 공급사로 최종 선정, Bechtel Polska와 바르샤바에서 계약체결
- Arabelle Solutions는 3기 모든 원자로에 대해 증기터빈, 발전기 및 주요 보조설비를 공급
- 공급사 선정은 4개 글로벌 업체가 참여한 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졌으며, 기술·성능·가격 조건에서 Arabelle이 최적의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
- 폴 국영 원전기업 PEJ(Polskie Elektrownie Jądrowe)가 공급사 결정을 승인했으며, 최종 EPC(설계·조달·시공) 계약은 2026년 상반기 내 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
- EPC 계약 체결 이후 터빈·발전기 제작이 시작되며, 1호기용 터빈 아일랜드 납품까지는 약 7년이 소요될 예정
- PEJ는 2026년 3월까지 원자력규제청(PAA)에 건설허가를 신청, 2028년 첫 원자로 콘크리트 타설, 2036년 1호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함
- 해당 원전은 포메라니아 주 Lubiatowo-Kopalino에 건설되며, 웨스팅 하우스 AP1000 원자로 3기(총 3,750MW)로 구성
- Arabelle Solutions는 전 세계 원전의 약 1/3에 설비를 공급, 총 150GW 규모의 터빈·발전기 설치 실적과 최대 1,750MW급 터빈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

○ 폴란드 Tarnów, Grupa Azoty 보유 상수도회사 지분 매입 추진(1.13)

- 타르누프 시의회는 Grupa Azoty가 보유한 TW 지분 12.4%를 약 19백만 즈워티에 매입하는 안건을 논의 중
- 인수가 성사될 경우 시의 지분율은 47.5%에서 59.9%로 확대되어 경영권 및 과반 지분 확보 가능
- 추진 배경: Grupa Azoty는 경영난(부채 약 100억 달러) 타개를 위해 비핵심 자산인 TW 지분 매각을 포함한 구조조정 진행 중
- 기대 효과: 지역 공기업의 지배력 강화, EU 보조금 및 공모사업 참여 자격 유지 등 전략적 투자 가치 증대
- 재원 마련: 시 잉여 예산 활용 및 고금리 채무의 저리 차환을 통해 마련

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○ 젤렌스키, 대통령실장 교체 등 대규모 권력 재편 단행(1.5)

-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드리 예르막(Andriy Yermak) 대통령실장을 해임하고, 키릴로 부다노우(Kyrylo Budanov) 국방정보총국(HUR) 국장을 신임 대통령실장으로 임명
- 부다노우는 전쟁 기간 중 대외 정보·특수작전을 총괄해 온 핵심 인물로, 대통령실을 군·정보 중심의 위기관리형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
- 디지털전환부 장관 겸 부총리 미하일로 페도로우(Mykhailo Fedorov)가 차기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며, 데니스 슈미할(Denys Shmyhal)을 교체할 가능성 제기
- 젤렌스키는 페도로우를 드론 라인(Drone Line) 프로젝트와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성과의 주역으로 평가하며, 국방부에서 군 구조 개혁과 첨단기술 중심 전력 전환을 맡길 것이라고 언급
- 대통령은 이번 개편을 'Internal Restart'라고 언급하며, 주(州) 군정청장 등 안보·지역 권력 구조까지 추가 교체할 가능성을 시사
- 전직 EU 외교관 발라즈 야라빅(Balazs Jarabik)은 이번 인사를 전쟁

중반부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며, 젤렌스키가 전쟁 수행, 평화 협상, 국내 정치 안정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

- 이번 권력 재편은 전시 체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더욱 집중화하고, 정보·기술 중심의 전쟁 관리 구조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됨

○ 우크라이나, 2025년 분산형 가스발전 762MW 신규 도입(1.5)

- 우크라이나 공공·민간·국영 기업이 2025년 총 762MW 규모의 가스 발전 신규 설비를 가동
- 에너지부에 따르면, 전시 상황에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, 분산형 발전에는 가스 발전, 재생에너지, 에너지 저장 시설이 포함됨
- 가장 많은 설비는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(5~30 kW)으로, 그린 요금제 혹은 국가 무이자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
- 기업·정부·지자체는 100kW~2MW급 태양광·열병합 발전 설비를 자체 수요에 맞춰 설치하며, 국제 기금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수행 및 에너지 시스템 회복력 강화
- 이번 성과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분산화와 전력망 회복력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으며, 전시 상황에서도 소규모·중규모 발전 설비를 통한 자급력 확보를 보여줌

○ 우크라이나 화학기업 민영화 추진, 원전·발전·제철용 핵심 소재 기업 매각(1.9)

- 국유자산기금(SPFU)은 1월 16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'스몰리(Smoly) 화학공장' 지분 100%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실시 예정
- 입찰 시작가는 72백만 흐리우나이며, 부가가치세는 별도
- 해당 공장은 이온교환수지(ion-exchange resins)를 생산하는 전략적 화학기업으로, 원자력발전소·화력발전소 수처리 및 제철·습식제련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를 공급
- 1998년 프리드니프로우스크 화학공장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설립, 우크라이나 핵심 원자력·에너지 인프라와 연계된 기업으로 분류

- 과거 매각 시도에서는 입찰가 144백만 흐리우나였으나, 참여자 부족으로 유찰, 이번에는 가격을 약 50% 인하하여 재매각
- SPFU는 또한 1월 13일 우크라이나 최대 비료·화학기업 중 하나인 '수미히임프롬(Sumykhimprom)' 지분 99.99%도 민영화 경매 예정
- 시작가 11억 흐리우나로, 질소·인산계 광물비료를 생산하는 국가 핵심 화학기업
-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이후 재정 확보와 산업 재편을 위해 전략 화학·에너지 연계 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있음

○ 우크라이나 DTEK, 루마니아에 3번째 태양광 발전소 준공(1.8)

- 우크라이나 최대 에너지기업 DTEK의 EU 자회사 DRI(DTEK Renewables International)가 루마니아에 126MW 규모 'Văcărești 태양광 발전소' 건설을 완료하고 상업 운전을 개시
- 발전소는 부쿠레슈티 북서쪽 67km 버커레슈티 마을 인근에 위치, 연간 약 5만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, 연간 48,600톤의 CO₂ 배출량 감축
- 이번 프로젝트로 DRI의 루마니아 내 재생에너지 자산은 태양광 239MW(글로데니 I-II 113MW + 버커레슈티 126MW), 풍력 60MW(루기노아사) 등 총 약 300MW 규모로 확대
- 2027년 1월부터 버커레슈티 발전소 생산 전력의 50%가 남동유럽 최대 에너지기업 OMV 페트롬에 공급될 예정
- 이는 2024년 12월 체결된 루마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력 구매계약(PPA)에 따른 것으로, 장기 고정 수요를 확보
- DRI는 현재 루마니아를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태양광·풍력·에너지 저장장치(ESS)를 포함 총 1.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개발·보유 중

○ 우크라이나, 바이오메탄 수출 원년 기록, EU에 1,120만m³ 공급(1.9)

- 2025년 우크라이나 민간 기업들이 사상 처음으로 바이오메탄을 EU로 수출, 연간 총 1,120만m³의 역대 생산 바이오가스를 유럽 시장에 공급
- 우크라이나 대형 농업지주사 MHP가 870만m³를 수출하며 전체의

약 77%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사로 부상, Vitagro(250만m³), Gals Agro(7.5만m³ 이상)가 뒤를 이음

- 2025년 2월 6일 Vitagro가 우크라이나 최초의 EU향 바이오메탄 수출을 개시, 국가 가스전송망(GTS)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하며 제도·기술적 수출 경로를 처음으로 확립
- 가스 형태 외에도 바이오-LNG(액화 바이오메탄) 수출이 본격화 되었으며, MHP가 5,000톤 이상, UM Liquid Gas가 약 900톤을 2025년에 해외 시장으로 수출
- 이번 성과는 농업 기반 바이오에너지 산업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, EU의 탈화석연료·탈러시아 가스 전략과도 구조적으로 부합함
- 우크라이나는 향후 바이오메탄·바이오-LNG를 전략적 에너지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며, 전시(戰時) 이후 에너지 외화 수입원 및 EU 에너지 통합 가속화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

○ 루마니아, 우크라이나 15km 도로 현대화 사업 착수(1.12)

- 루마니아가 Suceava - Siret 고속도로 Lot3 구간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내 약 15km 도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며, 전체 사업비는 EU 지원 'SAFE(Security Action for Europe)' 기금으로 조달
- 해당 도로 프로젝트는 민간·군사적 이중 목적을 가지며, 인접 국가에도 경제적·물류적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기금 지원이 가능
- 이번 투자는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도로 현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로, 북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트 콘스탄차 및 서유럽 도로망과 연결하는 전략적 인프라 구축의 일부
- 루마니아 도로 인프라청(CNAIR) 셰르바네스쿠 대변인은 “우크라이나 국경은 유럽 국가와 주요 글로벌 세력 간 갈등 지역과 인접해 있어, 이러한 인프라 개발은 필수적”이라고 언급
- 북부 루마니아~우크라이나~폴란드 구간 연결을 통해 군수·화물 운송 경로 확보, 우크라이나가 헝가리 의존도를 줄이고 NATO 동부 국경의 물류 및 방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- 루마니아는 이미 국내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연결망을 확장하고 있으며, 이번 사업은 유럽 내 전략적 교통·군사 인프라 연계 강화 차원에서 추진됨
- **우크라 안보 보장 논의 본격화, ‘의지의 연합’ 파리에서 회의(1.8)**
 -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‘의지의 연합(Coalition of the Willing)’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에 대해 정전 이후 정치·법적 안보보장 제공 방침을 공식화
 - 연합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자위 능력이 유럽·대서양 안보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
 - 주요 안보보장 수단으로 미국 주도의 정전 감시 메커니즘에 연합국 참여,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방위 협력 지속, 러시아의 재공격 시 공동 대응 약속(군사자산·정보·물류·외교·제재 포함)을 명시
 - 우크라이나는 이미 프랑스·영국과 전후 다국적군 배치에 관한 의향서(Declaration of Intent)를 체결
 - 스페인·캐나다도 파병 검토,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영공 감시 및 흑해 지뢰 제거 지원 의사 표명
 - 벨기에는 해군·공군을 활용한 안보 지원 참여를 검토 중
 - 유럽은 우크라이나 안정화를 위해 1만5천~3만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이 육·해·공 전 영역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논의 중
 -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광범위한 동맹국 연합에 기반한 우크라 안보보장을 공식지지, 러시아 재침공 시 지원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서방의 집단 억지 체제가 제도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
- **러시아,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2개 지역 전면 정전(1.9)**
 - 1월 8일 러시아의 우크라 에너지 인프라를 드론 및 미사일로 대규모 공격, 드니프로(Dnipro)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, 자포리자주(Zaporizhzhia)가 주요 타격을 받아 수십만 가구가 전력과 난방을 상실
 - DTEK에 따르면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약 60만 가구가 정전 피해, 자포리자주는 에너지 시설 파괴로 지역 전체가 블랙아웃 상태임

- 이번 공격은 겨울철 혹한기에 이루어져 인도적 피해 위험이 급증, 주거·병원·상수도·난방 시스템에 중대한 타격
- 젤렌스키 대통령은 “이는 군사 목표가 아닌 우크라이나 국민의 삶을 겨냥한 전쟁”이라며, 에너지 테러를 통한 사회 붕괴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
- 젤렌스키는 미국과의 평화 프레임워크 협상 와중에도 방공망 지원이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, 외교 협상과 군사·방공 지원은 병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
- 이번 공습은 키이우 - 워싱턴 간 종전 협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이루어져,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
-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은 분산형 발전·재생에너지·ESS 확대에도 불구하고, 대규모 송배전 및 발전 설비가 지속적으로 표적화되면서 구조적 취약성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

○ EBRD, 우크라이나 수력발전 설비 현대화 위해 75백만 유로 대출(1.12)

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이 우크라이나 국영 수력발전사 Ukrhydroenergo에 최대 75백만 유로를 대출하여 전력 설비 확보와 에너지 시스템 강화 지원
- 대출은 EU 보증 하에 제공되며, 국제 기부자들의 투자 보조금 최대 20백만 유로가 추가 지원되어, 총 사업비는 약 120백만 유로 규모임
- 자금은 핵심 전기설비 구매, 비상 예비 부품 확보, 컨설팅 서비스 등에 활용되며, 노후·손상 설비 교체, 운영 효율 개선 및 재생전력 생산 확대가 목적
- 사업 완료 시 연간 약 223 GWh 재생전력 생산과 연간 9만6천 톤 CO₂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, 전력 수입 의존도 감소와 최대 전력 수요 대응에 기여
- 모든 설비는 EU 환경·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기존 부지 내 설치, 토지 취득은 불필요
- 기술지원에는 엔지니어 교육과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함

- EBRD는 2022년 러시아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대폭 확대, 2025년 말까지 전쟁 관련 투자 총액은 약 90억 유로에 달해 최대 기관 투자자로 자리매김

○ 미·우크라이나, 8,000억 달러 규모 전후 재건 투자 추진(1.14)

-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전후 재건을 위한 '번영(Prosperity) 협정'을 체결할 예정이며, 향후 10년간 약 8,000억 달러 규모의 공공·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
-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, 이는 미국 주도의 평화협상 패키지와 연계된 핵심 경제 축으로 설계됨
- 해당 협정은 미국 특사 위트코프가 주도,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(BlackRock)과 CEO 래리 핑크가 재건 투자 구조 설계 및 자본 유치에 참여
- 재원은 대출, 보조금, 민간 투자로 구성되며, 에너지, 교통, 도시 재건, 광물·자원, 제조업 등 핵심 산업에 집중투자되어 일자리 창출과 귀환 난민의 경제 재통합을 목표로 함
- 본 협정은 2025년 체결된 미·우 광물 협정(미국 투자자에 대한 우선 접근권 부여)을 기반으로 확대된 구조로, 미국 기업이 재건 프로젝트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됨
- 경제 협정과 병행해 NATO 유사(類似) 수준의 안보 보장, 휴전 감시, 군사 지원 지속, 무기 저장시설 보호 등 '재건 연계형 안보 프레임워크'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
- 유럽 동맹국들은 협상이 성급하게 추진될 것을 경계하며 다보스를 공식 무대로 선택하도록 조율, 미국·유럽·우크라이나 간 공조를 유지한 가운데 협정 마무리를 유도
-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 재건에 최소 8,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, 이번 협정은 미국과 서방 자본을 구조적으로 결합해 장기적 평화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됨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 역 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 역 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2(304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6. 1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 개최 예정(1.20)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'25. 11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
○ (주요동향) 현지 SPC(Grupa Azoty Polyolefins S. A.), EPC계약에 의거하여 HEC을 상대로 하는 국제중재* 개시를 승인('12.29)

* SPC→VIAC(오스트리아 빈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센터)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 업 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id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
○ (주요동향) '26년 1월 이사회 부의(투자) 후 법률자문(현지법인 설립) 시행,
'26년 2월 이사회 부의(자회사설립) 후 SPA 체결

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업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심의 및 금융종결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

○ (주요동향)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완료('12.11.), 이사회 부의 예정('12.23)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 스템 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 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 스템 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 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월), 최종보고('25.12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.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 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1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